

【논 문】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실재*

— 만주 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곽 은 희**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리얼리티에서 프로파간다로: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
- III. 프로파간다에서 리얼리티로: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
- IV.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만주 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일제 말기의 만주 개척 서사와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를 분석 텍스트로 하여 ‘지배 구조가 프로파간다를 추동하는 힘’과 ‘현실이 리얼리티를 추동하는 힘’ 사이의 변이를 추적하였다. 만주 개척 서사인 『대지의 아들』에는 거대한 사회공학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농업적 진보 서사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회공학적 기획은 국가통치술과 결합되어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개조는 가독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주 개척 서사인 『대지의 아들』이 사회공학적 구상을 기반으로 진보의 혜택을 모두가 누린다는 국가주의적 유토피아 담론을 유포하는 데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5A8927787).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keh100@dau.ac.kr
이 논문은 2017년 11월 4일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향을 다시 묻는다’(2017.11.04.)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충실하다면, 만주 귀환 서사인 『소년은 자란다』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담론과 거리를 둔다. 『소년은 자란다』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년이 곤경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적 분별력을 갖추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평범한 이들의 상호부조는 '위로부터의 진보의 기획'과 변별되는, 새로운 주체와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만주 귀환 서사는 사후적 식민 기억을 통해 식민주의 프로파간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사회공학적 기획과 식민 현실 사이의 틈새, 개척 서사의 욕망과 디아스포라적 현실과의 간극을 드러낸다.

주제어: 식민주의, 프로파간다, 틈새, 간극, 만주 개척 서사, 만주 귀환 서사

I. 들어가며

일제 말기는 제국으로부터 발신되는 검열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당시 출판물들은 당국의 검열을 1차적으로 통과한 산물이다.¹⁾ 검열은 정치적인 권력이 문학에 작동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데에서부터 자기검열의 수준으로 내면화한 데까지 다양하다.²⁾ 검열이 내면화되는 경우에도 문학적 형상화의 토대가 되는 현실의 리얼리티로 인해 프로파간다 내부에는 균열 지점이 존재한다. 검열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다고 해서 프로파간다 내부가 수미일관되게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식민주의 검열장 내부에서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하나의 원리로 환원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수준과 층위로 실현되므로 중층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식민

1) 식민지 조선의 출판경찰 업무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제국의 출판경찰이 보다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과 맞물려 있으며, 1926년 도서과 설치 이후 체계화되었다. 조선 총독부 도서과는 검열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사상동향 조사자료를 정기·부정기 간행물로 구체화하였다(정근식·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150쪽).

2) 채호석, 2010, 『검열과 문학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국대학교 출판부, 38-62쪽.

주의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민주의의 지배 구조 하에 있었던 검열 체계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열의 장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만주’라는 공간을 표상하는 방식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검열의 장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 일제 말기와 해방기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 패리 앤더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단일한 시간대에 의해 포괄되어 동일한 출발점과 종결점을 공유하는 것처럼 다루는 한 연구대상의 다양한 층위를 파악하기 어렵다.³⁾ 이 글에서 일제 말기와 해방기라는 시간상의 차이를 중요한 서술 전략으로 삼는 것은 그러한 시간상의 차이를 통해 식민주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둘러싼 검열장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바로 그러한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생성하는 두 힘으로 ‘지배 구조가 프로파간다를 추동하는 힘’과 ‘현실이 리얼리티를 추동하는 힘’을 설정하고, ‘일제 말기의 만주 개척 서사’와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를 분석 텍스트로 하여 두 힘 사이의 변이를 추적할 것이다.

만주사변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정책이민은 조선의 식민 통치상 중요한 인구문제 해결책으로서, 대량의 조선인 농업 이민을 만주로 송출하여 조선의 과잉인구문제와 일본으로의 조선인 도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5년간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북만주에 입식된 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식지를 이탈하거나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이들 역시 많아져 1941년에는

3) 패리 앤더슨은 모든 역사가들이 사회의 여러 층들과 부문들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지만, 편의와 관습으로 인하여 시간적 일원론을 내포하거나 드러내는 연구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패리 앤더슨은 유럽 절대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역사학의 정통적 장르와는 다른 시간접합’을 취했다. 이에 대해서는 패리 앤더슨, 김현일 역, 2014,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현실문화, 10-11쪽.

만주 이민 신청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⁴⁾ 이와 같은 만주 이민의 추이를 살펴볼 때, 만주국 개척 서사에 재현되어 있는 유토피아 표상은 만주에 관한 대중들의 집단 정서를 만들어 내어 디아스포라를 추동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만주’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는 리얼리티를 압도하는 해석, 즉 조형 충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⁵⁾ 프로파간다 메커니즘 내에서 특정 공간이 명료한 이미지로 표상되는 것과는 달리, 실재하는 공간은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애매성이란,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리얼리즘적 충동’과 그것을 해석하려는 ‘조형 충동’이 평형을 이룬 상태”⁶⁾를 지칭한다. 따라서 만주 표상이 변이되는 가운데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재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만주 표상에 각인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생성되었는지 그 생성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 그리고 전형적인 이미지로 인해 가려졌던 애매성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II과 III장은 이 두 작업을 각각 다룰 것이다. 이 글에서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실재를 살펴보는 작업은, 만주 표상이 일제 말기와 해방기를 가로지르며 그 역사적 추이 속에서 변화되는 양상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II. 리얼리티에서 프로파간다로: 일제 말기 만주 개척 서사

만주 표상에 각인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II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만주 개척 서사는 이기영의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⁷⁾이다. 『대지의 아들』은 『조선일보』 1939년 10월 12일부

4)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199-205쪽.

5) 박은희, 2013,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178-179쪽.

6)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김정아 역, 2012, 『역사: 끝에서 두 번째 세계』, 문학동네, 71쪽.

7) 이상경은 선행연구에서 『대지의 아들』은 이기영이 과거 카프작가로서 썼던 농민문학과 새로이 써야 하는 생산문학 사이에서의 교투의 산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경은 특히 이

터 1940년 6월 1일까지 연재된 소설로, 총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이 본격적으로 연재되기 직전 『조선일보』에는 이기영이 『대지의 아들』을 집필하기 위하여 만주를 다녀온 경험을 담은 기행문 「만주견문」이 실린다. 이때의 경험은 「국경의 도문-만주소감」(『문장』, 1939.1.), 「만주와 농민문학」(『인문평론』, 1939.11.)에도 실려 있다. 「만주견문」, 「국경의 도문」, 「만주와 농민문학」을 읽어보면, 세 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만주의 ‘토지’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도 끝없이 내다보이는 만주의 망망한 광야, 멀리 끝없이 내뿜린 별관은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희망과 동경을 자아내게”⁸⁾ 하는 프로파간다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공적인 통치술의 관건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는 능력⁹⁾이라는 점에서 토지의 흡인력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중심축이다. 「만주와 농민문학」에는 만주 여행이 처음인 이기영이 “조선과 같이 산간 협지에서 살던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대경이”인 “대륙의 자연”에 감탄하는 장면이 있다. 이러한 시선은 만주 시찰자로서 이동가능한 조망 위치를 점유하며, 만주의 대륙적 풍토에 ‘희망과 동경’의 메타포를 부여한다. “이 자연적 조건이 조선의 농촌과는 동일의 비가 아님”¹⁰⁾은 『대지의 아들』에서 “××도 일대에 홍수”가 터져 “전장(田裝)을 몽땅 떠나보내고 일조에 적신(赤身)이 된 귀순네”¹¹⁾를 만주로 흡인한 주요 요인이다. ‘땅에 주

기영이 농민소설을 써오면서 꿈꾸었던 농민 영웅을 『대지의 아들』에서 처음으로 형상화해 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상경, 2016, 「기획소설」과 생산소설 그리고 검열 - 이기영 장편소설 《대지(大地)의 아들》론, 『현대소설연구』 62, 275-307쪽). 이상경은, ‘황건오’는 이전 농민문학에서 추구해 오던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인물이며 『대지의 아들』은 이러한 인물을 살아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글은 이상경의 분석과는 달리, 황건오의 성공적인 정착 과정의 근저에는 인간의 창조성보다는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에 대한 신뢰가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 8) 이기영, 1939. 10. 12.~1940. 6. 1.,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여기서는 이기영, 이상경 편, 2016, 『대지의 아들』, 역락, 10쪽).
- 9)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예코리브르, 284-285쪽.
- 10) 이기영, 1939. 11.,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93쪽).
- 11)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11쪽).

린’ 황건오가 김병호의 식구를 따라 만주로 처음 밭을 디디던 날에도 만주의 넓은 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동경으로 다가온다.

『대지의 아들』의 주인공 황건오는 수전을 개척한 조선 농민의 대표하는 인물이다. 황건오의 전형성은 소설의 제목 ‘대지의 아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눈 덮인 평원 광야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잣집 큰집에 온 것처럼 저절로 배가 부른 ‘땅에 대한 농군의 본능’으로 발현된다. 만주에 처음 들어와 방천살이(半作農)¹²⁾를 시작할 때부터 “어디 한번 기껏 농사를 지어보자는 욕심”에 치받쳐 “과연 여기 땅은 정말로 농군의 비위를 있는 대로 동하게 한다”¹³⁾는 고백은 그가 앞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실농(實農)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비록 소작농일망정 “남의 곱절만 부지런하면 될 듯 싶었”던 황건오는 “이 넓은 들 안을 눈을 죄다 풀어서 만일 풍년이 들 수 있다면 당장 올해 안으로 한 밭천을 잡을 수 있을 것”¹⁴⁾이라며 일확천금의 꿈에 젖는다.

풍요의 광경에 대한 상상을 기반으로 자연 공간인 만주는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자연 공간’은 장소와 그 장소를 점유하는 것들이 병치되고 개별화되는 반면, ‘사회적 공간’은 하나의 점으로 혹은 그 점을 중심으로 현실적 혹은 잠재적으로 모든 것을 모은다.¹⁵⁾ 자연공간에는 역사적 현실에 가득 차 있는 본질적 우발로 말미암아 애매성이 살아있으나, 사회적 공간에서 애매성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초점화되어 특정 형상으로 조형된다. 만주가 자연 공간일 때 ‘광대무변한 대지’가 생의 (불)안정을 결정하는 생존 수단이었다면,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된 만주에서 대지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만주

12) “소작인이 지주에게 직접으로 작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간인이 만인 지주에게 소작권을 빌어가지고 중간작의 이득을 취함을 이른다. 토지차득인은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소작인에게 농량을 대주어 가며 대작(代作)을 시킨 후에 수확 곡물을 절반씩 분배하는 제도라 한다.”(이기영, 1939. 9. 26.~10. 3., 『만주 견문 -대지의 아들-을 찾아』, 『조선일보』(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105쪽).

13)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65쪽).

14) 이기영, 위의 글, 같은 쪽.

15) 앙리 르페브리, 양영란 역, 2014,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르, 173쪽.

로 끌어들이던 주요 요인인 동시에 인간의 창조성을 부각시키는 조건으로 전경화(前景化)된다.

만주로 들어간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벼농사 영농법에 의존해서 살아갔는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존 수단은 중국인 지주로부터 얻은 소작지였다.¹⁶⁾ 만주 기행문 『만주견문』에서, 토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조선 농민들이 남의 논을 소작하는 탓에 언제나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포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기영 역시 이러한 현실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한 농민의 대대수가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사처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 아편과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악덕 ‘부로커’가 많아서 우직한 농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 지력이 체감하여 결국 피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등, 『만주견문』에 나타난 만주의 부동성은 모두 생산조건인 토지의 불안정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에서 만주의 부동성은 인간의 창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전환된다. 『대지의 아들』에서 문학적 지향점은 생산조건인 불안정성으로 인한 만주의 부동성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부동성을 뛰어넘는 인간형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창조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대지의 아들』의 이러한 지향점은 만주의 농촌을 견학하고 느낀 바를 문학적 견지에서 쓴 『만주와 농민문학』(『인문평론』, 1939. 11.)에 잘 드러나 있다. 『만주와 농민문학』에서 이기영은 “만주의 농촌개발이 장래의 농민문학을 개척할 위대한 소재와 정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연과의 투쟁 과정(수전개척)에 드러난 인간의 창조성을 장래 농민문학의 한 성격으로 보아 무한히 동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 만주가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유농촌이었던 개양툰이 안전농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려진다. 개양툰은 ○○강 연안 저습지 일대 벼들밭과 늪 사이의 한전(旱田)을 중심으로 형

16) 조선인 가운데에서도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5상(晌) 미만의 영세농이었으며, 대부분 경사지나 척박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윤휘탁, 2001, 『만주국 농촌의 사회상-복합민족구성체』의 견지에서 본 식민지 농촌의 단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205-212쪽).

성된 수십 호 부락으로, 이십 년 전 김시중 노인이 십여 호의 동포를 데리고 오면서 개척되기 시작했다. 김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지도 인물이 없는 동네는 피폐해지고 퇴락해간다.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술과 아편과 노름으로 탕진하니 마을은 몇 해간 농사를 짓다가 돌피밭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는 곳, 건달 농군들이나 드나드는 곳이 된다. 만주사변 후 황건오, 홍승구, 강주사, 정대감 등 피난민들이 농장에 모여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은 점차 부흥의 기운을 맞이한다. 만주사변 전의 개양툰이 비적이 침입하고 관리의 학대가 심각한 공간, 그리고 제방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홍수라도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면, 만주사변 후의 개양툰은 황금같이 누렇게 붙은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공간, 농악이 건전한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만주와 농민문학』에서 이기영은 “만주의 수전개발은 원시적 자연을 변개하는 위대한 창조성을 띠고 있다. 같은 농촌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만주농촌의 특별한 성격으로 되어 있다”¹⁷⁾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만주에 있어서 신흥 농촌건설 사업은 동시에 농민문학, 즉 대지의 문학을 건설할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¹⁸⁾고 전망한다. 여기서 제시된 장래의 농민문학, 즉 대지의 문학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신흥농촌 건설’과 ‘창조성’이다. 『대지의 아들』에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개양툰 농장이 변모해가는 모습에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정착한 이들이 최신 농사법을 경작한 결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모두가 풍요로워진다’는 농업적 진보 서사가 내재되어 있다. 이때 농업적 진보란 거대한 사회공학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처방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계획된 정착과 정주화를 추진하는 국가, 과학적·기술적 진보, 생산의 확대, 사회질서의 합리적 설계, 인간의 요구에 대한 만족의 증가,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통

17) 이기영, 1939. 11,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95쪽).

18) 이기영, 1939. 11,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 11(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96쪽).

제의 증대가 내재되어 있다. 제임스 C. 스콧의 농업적 진보에 관한 사회공학적 구상에 의하면,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 갈등, 가난으로 인해 농민들이 무산자로 전락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이룩한 ‘생산력 증대’로 해결된다.¹⁹⁾ 『대지의 아들』의 서사구조에서 지주-소작인 간의 갈등이 전면화되지 않고 황건으로 대표되는 개척농의 성공적인 정착과정으로 귀결되는 근거에는 그러한 사회공학적 구상에 대한 신뢰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농촌개발에 드러난 ‘인간의 창조성’이 장래의 농민문학을 개척할 소재와 정열이라고 『만주와 농민문학』에서 전망하고 있지만, 이를 만주국 농촌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이기영이 방점을 둔 것은 인간의 창조성이라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와타나베 나오키는 선행연구에서, 루이스 영이 주장한 ‘재발명된 농본주의’²⁰⁾라는 개념을 적용면서, 『대지의 아들』이 농촌 개혁 운동과 연동되고 있으며 종래의 계급 관계를 가능한 한 무화하려는 ‘재발명된 농본주의’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의 현실을 여실히 그리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와타나베 나오키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 만주국의 정책은 그때까지의 일본 농본주의의 사상이나 주장과 그 성격이 다른데, 특히 농본주의와 사회공학적인 사상이 결합되면서 계급 차이나 소작제도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사회정책상의 아이디어가 생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¹⁾ 필자가 판단하기에, 와타나베 나오키의 주장에서 『대지의 아들』이 그리고 있는 만

19)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2010, 앞의 책, 144-152쪽.

20) 일본의 농본주의자들은 농촌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지주들의 견고한 이해관계와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은 뒤, 실패한 사회복지 정책을 대한 대안, 그리고 지주/소작인 간 갈등으로 인해 분열된 농촌의 사회적 화합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대안을 ‘제국’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루이스 영이 말했던 ‘농본주의’와 ‘제국’의 결합을 통한 ‘농본주의의 재발명’이다. 사회적 정의를 향한 농촌 대중들의 요구를 ‘제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에 대한 약속과 맞바꾼 것이다. 여기서 제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이란 만주의 식민화를 통한 것이다(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and Cambridge: Polity Press, pp. 350-351).

21) 와타나베 나오키, 2009,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316-318쪽.

주의 현실이라고 파악했던 부분은 만주의 삶의 현장이라기보다는 만주의 농촌에 투영되어 있는 거대한 사회공학적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의 배후에 드리워진 국가의 시선이다.

국가통치술과 결합된 사회공학적 구상은 위로부터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조·관리·통제를 동반하며, 바로 그런 까닭에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이지만, 프로파간다의 층위에서 이는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유도피아적인 비전을 유포한다. 모든 “농민의 기쁨은 농사를 짓는 데 있고 그들이 지은 곡식으로 다시 배불리 먹고 잘사는 데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문화적으로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탁락한 동네를 만들어간다면 농촌의 천당이 과연 이밖에 또 무엇이 있으랴”²²⁾는 황건오의 이상은 ‘땅에 대한 농민의 본능’→‘선진적인 영농기술(수전)+근면한 노동’→‘생산성 향상’→‘농촌 유도피아’로 이어지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에는 “농촌 갱생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주 개척정책기본요강의 기본방침²³⁾, 즉 국가의 조망에 의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개조가 전제되어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개조는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풀이만 몇 해씩 해먹다가 피가 나면 내버리고 마치 화전민처럼 오지로 깊이 들어갔다”²⁴⁾는, 소위 ‘건달농민’의 경작 방식은 이동식 경작에 가깝다. 이동식 경작의 경우 몇 해 경작한 뒤 몇 해 방치하는 것은 경작지의 산출력이 예전 수준으로 복원되기 까지 기다림으로써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²⁵⁾ 이동식 경작은 또한 습격, 국가 만들기, 국가의 수탈에 대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농업정치학적 전략으로서 수탈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농업 방식이다.²⁶⁾ 『대

22)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222쪽).

23) 『만주개척연감』, 1940, 9쪽(여기서는 김윤미, 2009,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17, 29쪽에서 재인용함).

24)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119쪽).

25)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2010, 앞의 책, 425-426쪽.

26) 제임스 C. 스콧, 이상국 역, 2015,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삼천리, 332-339쪽.

지의 아들』에서 몇 해 농사를 지은 뒤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는 경작 방식은 농사짓기에 수월한 곳만 찾아다니는 건달농민들의 한탕주의식 농경 법으로 묘사된다. 경작 방식에 대한 판단이 경작지 및 경작 주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여부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농업 당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동식 경작은 경작 농민들의 이동성과 경작지의 유동성으로 인해 파악하기 힘들고 그 진행을 감지하기 어렵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결정된 ‘선농취급요강’을 보면, “이주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입만(入滿)시키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만주국에서도 척정변사처(拓政辯事處)를 설치하여 통제 지도”하며, “생활의 기반이 불확정한 부동선농(浮動鮮農)에 한해 결집하고 원칙적으로 현주지에 안정시킨다”²⁷⁾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동성과 부동성이 관리·개조의 대상²⁸⁾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 유동성과 부동성에 대한 개조는 만주사변 이후 개양툰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 인물들의 내력과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말지사로서 만주벌판을 수십 년 방황한 ‘강주사’, 대처에서 마약장사를 하다가 사변통에 쫓기어 개양툰으로 들어온 ‘홍승구’, 농사가 잘 되어도 술과 아편으로 탕진하고 마는 ‘정대감’, 도문에서 밀수를 하며 방랑하던 ‘김병호’,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장사며 막 벌이며 안 해 본 일이 없는 ‘원일여’, 만주에 온 첫 해 친구 ‘김병호’와 함께 하얼빈의 유혹에 빠져 한 해 농사지은 쌀을 며칠 만에 날린 ‘황건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부동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개양툰 농장의 확장과 수전(水田) 개척사는 이러한 인물들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부동성이 소멸되는 과정과 결합되어 있다. 부동성의 개조는 정착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풍요의 풍경을 낳는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의 중요한 기반이다. “근

27) ‘선농취급요강’(1938)에 대해서는 김윤미, 2009, 앞의 논문, 24쪽.

28) 식민 지배 장치의 결정적인 이점은 군사력만큼이나 행정력에도 있었다. 식민지 정부는 과세지 측량, 토지세 과제를 위한 이주 보고서, 인구조사 등 행정이 발달했는데, 관리들이 짜놓은 그물이 정교할수록 거주민들의 각 행위를 포착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제임스 C. 스콧, 김춘동 역, 2004,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132-133쪽).

검저축을 한 이 마을의 농호들은 한 천지(一天地)에 칠팔 단의 소작료를 무는 땅에서도 이십여 단의 수확을 낼 수가 있다”거나 “이 마을 사람들은 비싼 소작료를 물면서두 제가끔 수백원씩 저금을 하여 낸다”²⁹⁾는 풍요의 풍경은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적 잉여를 기반으로 농촌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농업적 진보의 기획을 재현하고 있다. 석룡의 딸 귀순과 황건오의 아들 덕성의 연애와 결혼은 이민 2세대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업적 진보의 기획이 한시적인 실현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보증한다.

부동성의 개조는 인간성의 개조와도 연동되어 있다. 젊은 세대 가운데 복술은 아버지 원일여를 감쪽같이 속인 채 학교를 빼먹고 만인들의 아편굴에 드나들며 밤낮 빈둥거리는 인물이지만, 덕성을 은근히 존경하며 좋아한다. 복술이 덕선에게 느끼는 존경어린 마음은 그가 비록 바람둥이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장차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덕성의 아버지 황건오는 이러한 개조의 중심에 있으면서 모범의 전형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김병호와 함께 하얼빈에 갔다가 유혹에 빠져 일 년치 농사를 단 며칠 만에 모두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보고도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일가족의 생명이 부지한 것은 오히려 다행으로 알고”³⁰⁾ 묵묵히 이듬해 농사를 지을 만큼 우직하다. 흠어머니 밑에서 어릴 적부터 온갖 고생을 겪은 터라 남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웃 간에 정이 두터워 딱한 일을 보면 그대로 있지 못하는, 선하고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신학교에 다니는 서치달이 농사강습회에서 알려주는 농법을 신뢰하며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긍정형의 인물이기도 하다.

황건오는 부지런하고 착실한 실농(實農)의 전형으로, 인간 개조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황건오가 보여주는 우직함과 선량함, 건강한 신체와 부지런한 습성은 만주의 대자연을 개척하는 인간의 열정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데로 초점화된다. 그런데 그런 황건

29)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457쪽).

30) 이기영, 1939. 10. 12.~1940. 6(여기서는 이상경 편, 2016, 앞의 책, 120쪽).

오의 열정이 식민당국의 입장에서 전혀 해롭지 않은 ‘순치된 열정’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마을이 비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에도, 예전에 비적에게 잡혀갔다 도망쳐 온 기억을 살려 토벌대를 비적들이 사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 토벌대는 황건오의 안내 덕분에 희생 없이 비적을 섬멸한다.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했던 비적의 공간은 황건오를 매개로 식민당국의 조망권 안으로 포획된다.

수로 싸움은 황건오의 열정이 어떻게 순치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개양툰의 눈에 물이 점차 말라가는 것이 상류의 조선 농민들이 강물을 막아놓은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된 황건오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상류 마을로 향한다. 이때 황건오는 자신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니 경찰당국에서 이 일을 묵인해 주기를 먼저 털어놓고 당국의 허가를 기다린다. 결국 황건오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되 당국의 조망에서 그 내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독해가능한 인물이다. 조선인의 불온성이 만주나 상해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되었다³¹⁾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만주 개척민의 전형인 황건오의 순치된 열정은 불온한 것들을 통치가능한 것으로 전유하려 했던 식민권력의 통치성³²⁾과 관련되어 있다. 황건오의 열정에는 보이지 않는 내밀한 요동이 없는 까닭에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고 유용하다. 당국이 개양툰을 안전농촌으로 만들기로 하고 보조금을 내려서 제방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장면, 그리고 토지를 사들여 농경을 확장하도록 하는 장면은 순치된 열정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나타낸다. 안전농촌으로의 변모는 농민들에게서 부동성이 제거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존재, 독해가능한 존재로 개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지의 아들』에서 만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공간으로 전유된다.

31) 『불온한 만주의 조선인』, 1920. 6. 17, 『동아일보』; 『간도의 불온상태』, 1920. 5. 9, 『동아일보』.

32) 임유경, 2015, 『‘不穩’과 통치성-식민지 시기 ‘불온’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90, 412쪽.

Ⅲ. 프로파간다에서 리얼리티로: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

만주를 균질적인 공간으로 표상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인위적인 현상이라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생성되는 것은 현실로부터 분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생성되는 까닭은 프로파간다가 기반하고 있는 현실의 리얼리티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간극은 텍스트의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징후적 독해를 통해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일제 말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검열 체계를 상대화할 수 없으므로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에 대한 검토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역사는 앞선 사건이 뒤의 사건을 초래하는 단순한 연속, 즉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화한 시간’의 관계들로부터 만들어진다³³⁾는 푸코의 논의로부터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푸코는 공간 연구에 있어서 시간을 포용하는 것, 시간에 대해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특히 ‘현실의 차이를 만드는 시간성’을 강조하면서 공간을 탐구했는데, 이 불연속성의 방법론은 살아있는 일상적 투쟁으로 가득 찬 실체적 지리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었다.³⁴⁾

프로파간다의 전략과 실제 간의 간극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현실의 리얼리티임을 고려할 때, 제국의 해체와 만주국 붕괴라는 사건은 프로파간다와 리얼리티 간의 관계를 뒤흔드는 지각판의 동요와도 같다. 제국의 해체에 따른 귀환은 단순한 이동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생활해온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의 격변을 수반한다³⁵⁾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만주국 붕괴 후 만주 지역은 국민당군과 중국 공산당군의 내전 상태에 돌입해 일진 일퇴가 계속되었으며, 소련군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잡한 권력 상황에 놓

33) 크리스 필로, 최병두 역, 2013, 『푸코의 지리학』,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텔프리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 리브르, 384쪽.

34) 크리스 필로, 최병두 역, 2013, 위의 글, 386-387쪽.

35) 아사노 도요미, 이길진 역, 2005, 『살아서 돌아오다: 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숲, 1쪽.

이다.³⁶⁾ 만주국 붕괴 후 조선인들은 그간 일본의 신민으로서 대륙 침략에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보복적 습격을 면하기 어려웠다. 일부 조선인 마을은 중국인의 습격을 받아 전멸되다시피 하였으며,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생사를 넘나들며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고향에서도 무일푼인 그들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경우 다시 만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토지 분배 정책에 희망을 품고 공산당군에 가담하여 국민당 군대와 싸우기도 했다.³⁷⁾ 제국의 해체 이후 만주국으로부터 목숨을 건 귀환이 감행되었고, 귀환의 기억을 통해 재인식되는 만주국의 면모는 프로파간다 전략과 실재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 III장에서는 만주 개척 서사 가운데 당대 삶의 리얼리티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허준의 『잔등』, 김만선의 『귀국자』, 채만식의 『소년을 자란다』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에서는 조선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리얼리즘적 충동이 만주를 일정한 방향으로 표상하고자 하는 조형 충동보다 우세하게 드러난다. 허준의 『잔등』은 장춘에서 회령, 청진을 거쳐 서울로 귀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목릉에서 차를 타는 소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촌매부의 어린 넷째 아들을 연상하게 된 ‘나’는 만주에서 살던 사촌매부 일가의 사연을 전한다. “의지가 굴강(屈強)하고 바르고 과감한 매부 일족”은 “십오 년 동안의 풍상을 겪어오는 동안에 발날거리 논마지기나 제법 만들어놓기에 성공하였”지만, “일본 집단 개척에게 전지를 빼앗기고 살던 데를 앗기운”³⁸⁾ 채 복안으로 쫓겨 가게 된다.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이들의 사연은, 만주 개척 서사에 묘사된 광활한 대지의

36) 패전 국민인 일본인은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어 수용소 등에서 생활하였으며, 그곳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주 재주자 155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346-348쪽).

37) 윤휘탁, 2012, 『‘복합민족국가’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滿洲國人’의 충돌·수난』, 『중국사연구』 78, 188-194쪽.

38) 허준, 『잔등』, 1946. 1~7, 『대조』 1~2호(여기서는 권성우 편, 2015, 『허준 중단편선 잔등』, 문학과지성사, 92쪽).

풍경이 실상은 만주국 정부와 만주척식공사가 토지를 헐값으로 수매하는 과정에서 쫓겨난 유민(流民)들의 역사가 삭제된 결과였음을 말해준다. “만척(滿拓)에 강제 수용을 당하고 북안에 온 지는 오 년째데 (중략) 한 해 가고, 이 태 가고, 삼 년 가니, 인제는 억지로 정 붙이려던 제 생각도 다 절로서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오는 것”³⁹⁾ 이라는 때부의 모습은, 만주 개척 서사에 내재된 유토피아적 비전이 ‘공들여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쫓겨난 이들의 회환’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만선의 『귀국자』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재만 조선인의 자기성찰과 고뇌가 서사의 중심에 위치한다. 주인공 혁은 일인(日人)들의 체취를 소생시키는 듯한 아내 영애의 취미에 증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질질 이끌리어 살아온 쫓대 없는 사나이”⁴⁰⁾이다. 반일 운동에 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조선 사람이 아니다! 어디로든지 가버려라”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혁과는 달리 영애는 “출세나 한 듯 혼자서도 만족”이었으며, “일어와 왜식 생활에 재미”⁴¹⁾를 느낀다. 아내와 딸은 ‘일본인들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신경에 살고 있지만, 혁이 보기에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딴 민족과의 친선이라고 하나 주동체는 일녀(日女)들이라 만주여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피동체였으며 조선사람들은 (중략) 조선부인네들만의 분회(分會)를 가졌으면서도 일인들의 예측적 혹은 보조적 기능밖에 발휘를 못했었”⁴²⁾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혁의 아내 영애와 딸 경희가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이 생성하는 만주 표상에 충실한 인물이라면, 혁은 만주국 내에서 조선 부인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인식하고 표상된 만주와 리얼리티 간의 간극과 틈새를 감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 간극으로 인한 혁의 괴로움은 귀환 후 불안으로 증폭된다. 혁은 협화회나 만주국 관리로 앉아있던 이력 덕분에 조선에 “돌아만 오면 무슨 자리든 높직한 의자를 차지하리라

39) 허준, 『잔등』, 1946. 1~7, 『대조』 1~2호(여기서는 권성우 편, 2015, 위의 책, 92쪽).

40) 김만선, 1948, 『귀국자』, 『김만선 창작집 압록강』, 동지사, 25쪽.

41) 김만선, 1948, 『귀국자』, 위의 책, 19쪽.

42) 김만선, 1948, 『귀국자』, 위의 책, 18쪽.

민었”지만, 귀국 후 “만주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는 처세하기에 곤난”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만주서 살았었다면 아편을 팔았다든지 계집장사였겠지 하는”⁴³⁾ 시선으로 말미암아 혁은 “발을 붙이고 궁텅이를 안정시킬 마땅한 자리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아 불안”⁴⁴⁾하기 짝이 없다. 만주 귀환자 혁의 불안에는, 1930년대 후반 재만 조선인들이 실제로 만주국 관리와 아편 장수가 뒤섞인 복합적인 집단⁴⁵⁾이었음을 포착하고자 하는 해방기 문학의 리얼리즘적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의 리얼리티를 이끄는 핵심은 만주국 붕괴 후 생존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이다. 김만선이 『압록강』에서 묘사한 대로 “대부분의 조선사람들은 만주서 그대로 살아나갈 자신을 잃었고 생활이 불안해만”가는 터라 “만주땅과 몇십년씩 씨름을 했던 농사꾼들이 대부분 피만민열차에 몸을 실어 압록강을 다시금”⁴⁶⁾ 건넌다. 김만선의 『이중국적』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일인들이 경영하던 공장을 쳐부수고 주택을 습격해서 인명을 다 치는대로 살해하며 물품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아울러 조선사람들도 걸리기만 하면 한몽동이에 개죽음을 당한다는”⁴⁷⁾ 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만주로 떠났던 이들은 다시 조선으로 귀환한다. 대부분의 재만 조선인들은 제국의 대항자라기보다는 연민 혹은 절실한 생존의 선상에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전위로 인식되어 박해를 받거나 무차별적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⁴⁸⁾ 만주 귀환 서사는 생존의 절박함을 안고 만주로 건너갔던 이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생존에 이르는 긴 여정을 그리면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서사의 중심으로 부상시킨다. 이 과정에서 만주 귀환 서사는 만주로 떠났던 이들의 기억과 회상에 통해 식민주의를 재구성함으로써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조망한다. 사후적 기억에 의해 부상되는 식민지의 현실은 프로파

43) 김만선, 1948, 『귀국자』, 위의 책, 26쪽.

44) 김만선, 1948, 『귀국자』, 위의 책, 26쪽.

45)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50쪽.

46) 김만선, 1948, 『압록강』, 앞의 책, 91쪽.

47) 김만선, 1948, 『이중국적』, 앞의 책, 66쪽.

48) 한석정, 2016, 앞의 책, 142-143쪽.

간다 전략을 균열시키는 동력이다.

식민지가 제국에 영향을 끼친 총력제국(total empire)으로서의 만주국의 면모를 분석한 루이스 영에 의하면 만주국은 제국에 여섯 가지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 및 사회 영역으로 국가의 개입을 확장시킨 것이다.⁴⁹⁾ 『대지의 아들』에서 서사를 이끄는 중심에 국가통치술이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은 만주국의 이러한 면모, 즉 경제·사회 영역으로 국가의 개입을 확장시킨 총력제국으로서의 만주국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귀환 서사 속에 담겨 있는 만주의 기억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벤야민의 인식을 빌려 표현해 보면, 그것은 지나간 것을 알아내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사태를 헤집고 흠뻑려 이전의 관계망들을 통찰하는⁵⁰⁾ 데까지 나아간다. 특히 그러한 통찰을 통하여 캐묻게 되는 것은 경제·사회 영역에 대한 국가 통치술⁵¹⁾의 확장에 대해서이다. 이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⁵²⁾는 만주에서 귀환하는 도중에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년 영호를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무엇이 가장 약한 존재를 곤경에서 구하고 생존에 이르도록 하는지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1940)이 국가통치술과 결합한 사회공학적 구상을 기반으로 진보의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누린다는 국가주의적 유토피아 담론을 유포하는 데 충실하다면,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1949)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담론과 거리를 둔다. 『소년은 자란다』에서 절박한 소원이 독립이나 독립운동보다는 “기후가 사납고 그런

49) Louise Young, 1998, *ibid.*, pp. 415–422.

50) 발터 벤야민, 김영옥·윤미애·최성만 역, 2007,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182–183쪽.

51) 근대 정치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어인 국가(state)는 어원에 따라 여러 주제를 나타낸다. 그 가운데 ‘국가’라는 용어의 가장 우세한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국가통치술(statecraft)이다. 클리퍼드 기어츠, 김용진 역, 2017, 『극장국가 느가라』, 도서출판 눌민, 2017, 219–220쪽.

52)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가 탈고된 것은 1949년 2월 25일이지만, 『월간문학』 1972년 9월 호에 발표된다(『채만식의 미발표 유고 『소년은 자란다』 발표』, 1972. 8. 5. 『중앙일보』).

중에도 서리가 일러 까딱하면 농사가 낭패되기 쉬운 이 고장에서 어떻게 하면 굶어죽지 않고 살아나가느냐⁵³⁾,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 제발 이 고생 면하게 하여 주느냐⁽³¹⁾”하는 문제였던 만큼, 해방 후 국민국가의 국민되기⁵⁴⁾라는 조형 충동과도 거리를 둔다.

조선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조선으로의 이동을 그린 두 작품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다. 알튀세가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시간 모형을 비판하며 주장한 바와 같이, 전체와의 상호의존 속에서도 다른 수준의 시간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하나의 ‘독자적인 시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⁵⁵⁾ 해방 시기는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독자적인 시간으로서, 세계사적인 인구이동을 촉발하면서 식민 과거를 기억하고 국민국가 건설을 전망한다. 해방은 제국/식민지의 관계를 해체하고 민족국가로서의 경계를 만들고 동시에 지리적·역사적·문화적 다양성들을 함께 불러 모은 ‘접경 지대(contact zone)’⁵⁶⁾로서, 조선 안팎에서 흩어져 살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재등장하는 시기⁵⁷⁾이다. 일본의 경우 귀환자 문제는, 식민주의나 패전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소거한 채, 반소/반공 언설로 특수화된 문화냉전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졌다.⁵⁸⁾ 이와 달리 『소년은 자란다』는, 해방을 전면적으로 다루되 만주 이주민들의 귀환에 초점을 두으로써, 위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억제되어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53)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박상률 편, 2005, 『채만식 소설 소년은 자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41쪽(이하 인용은 본문 괄호 속 쪽수로 표시함).

54) 귀환이란 제국의 신민에서 개별 국민국가 국면으로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귀환은 제국 해체 이후 국민국가 질서강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박이진, 2018, 『문화냉전과 귀환자: 『귀환자필휴』 속 포섭의 논리와 작동된 표상』, 『해방 후 남북한의 국가건설과 전후처리』, 경인문화사, 194쪽).

55) 루이 알튀세, 김진엽 역, 1991, 『자본론을 읽는다』, 두레, 127쪽.

56) 접경 지대(contact zone)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시공간을 뜻한다(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 2015,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34-35쪽).

57) 전우형, 2018, 『접경(Contact Zones)의 연쇄로서 해방 공간과 허위와 무위의 영화적 공간』, 『동악어문학』 75, 52-53쪽.

58) 박이진, 2018, 앞의 논문, 186-188쪽.

발화, 그리고 제국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접경 지대로서 해방 시기가 지니고 있었던 생성적 에너지는 만주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질성, 즉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⁵⁹⁾를 재현의 중심으로 부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년은 자란다』에서 만주는 사회적 타자들의 공간, 즉 공간의 질이 다른 헤테로토피아로 재현된다. 간도 왕청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만하게 여겨져 고국에서 쫓겨 만주로 굴러 온”(32) 이들이라 생각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만주로 몰려난 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 배워 만만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33)이라 여긴다. 사철 내내 죽이 아니면 굶고 사는 가난을 타박하던 아내가 읍내 이발소 종업원을 따라 붓짐을 싸버린 탓에 오 서방은 어린 영만을 홀로 키우는 처지가 된다. 그 후 오 서방은 자신을 동정하기는커녕 오죽 못났으면 계집을 뺏기느냐고 비웃는 문중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을 피해 고향을 떠난다. 오 서방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영호 어머니 역시 하루도 거르는 날 없던 무서운 매질을 피해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인물이다. 만주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더 하찮고 만만하여 내쫓긴 이들이 “농사짓고 살기가 좋다”(81)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공간이다. 만주는, 양반 집안에서 도무지 문중이 창피해서 못 살 노릇이라며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기존 질서를 피해서, 혹은 까닭 없는 혼자만의 의심으로 피부어 쌓던 폭력을 피해서 찾아가는 이질적 공간, 헤테로토피아이다. 『소년은 자란다』에서 전해지는 두 남녀의 사연은 버려져도 무방한 밑바닥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왕청현에서는 보기 드문 지식인인 오 선생 역시 “왜사람들이 보기 싫어 만주 구석으로 피해”(25) 온 인물이다. 그는 사범학교를 제대로 나와 자격과

59) Michel Foucault, 1967, “Different Spaces”, edited by James D. Faubion, translated by Robert Hurley and others, 2006, *Aesthetics, Method and Epistemology*, New York Press, p. 179. 만주의 헤테로토피아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앞의 책, 18쪽; 곽은희, 201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84-108쪽.

실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지만, 관청과 경찰에서는 “실없는 것이나 일삼는 흐리터분한 사람”으로 여긴다. 오 선생이 “못난이 대접을 받는다”(28) 덕분에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감옥살이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할 수 없이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만 눈을 흘기는” 오 선생의 처세술은 저항하되 들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오 선생의 처세술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저항하는, 즉 저항하되 살아남고 저항하되 들키지 않는, 약한 자들의 전략을 대표한다. 제임스 스콧이 분석한 대로, 약한 자들이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상 속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질서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편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형태를 띠는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연·위장·거짓 준수·비방과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⁶⁰⁾ 오 선생은 “변변치 못한 이의 이중생활”이라며 자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중생활 덕분에 협화복을 입지 않아도, 협화회에 들지 않아도 해를 끼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소년은 자란다』는 이민 1세대의 만주 개척과 이민 2세대의 만주 귀환을 동시에 다루면서 식민의 기억과 해방의 현실 모두를 서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 서방의 서사는 사후적인 식민 기억을 통해 “만주로 가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보겠다”(127)는 프로파간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만주 개척 서사를 이끌었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은 “15년을 강냉이 조밥에 일본 사람 만주 사람의 억눌림을 받으며 모진 추위와 함께 살았”(127) 으되, 큰 아들 영만은 집을 나가 잃고 아내는 원통하게 죽어 그곳에 시체를 묻었으며 또 하나의 자식은 날린 오 서방의 생애를 대면하면서 균열된다. 귀환길에 고아가 된 소년 영호의 서사는, 해방을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선언되나 실상은 “농사하던 땅이며 농사지는 곡식과 애를 태우며 장만한 살림살이에 어머니까지도 빼앗아 가 버린”(247) ‘비잔 해방’이었음을 대면하

60) James C. Scott,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28~33.

도록 이끈다. “고국으로 돌아만 가는 날이면 동포의 따뜻한 마중을 받을 줄 알았을 것”이고, “못 살게 굴던 왜사람들이 쫓겨가고 없으니 좋다고 생각했을 것”(246)이나, 전재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눌림 없이 사는 것 대신, 살 집과 농사지를 땅 대신, 입었던 옷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소년은 자란다』는 동시대 귀환서사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민족주의적 열망과 거리를 둔다.⁶¹⁾ 이처럼 『소년은 자란다』가 해방기 귀환서사가 보여주는 ‘조선인-되기’의 과정⁶²⁾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년 영호의 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상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찰 덕분이다.

영호가 목격한 ‘이상한 민주주의’란 “당장 저 좋을 대로만 하면 그만인”(151) 상태를 지칭한다. 물자 따위를 넘겨받아 팔아먹는 장사치들, 장사치들이 들이치는 뇌물로 배를 채우는 벼슬아치들이 기가 막히게 민주주의를 우려먹는 동안, 전재민들은 “원호소 신세를 지며 구중중한 수용소에 누워 추위와 굶주림과 실망에 떨고”(150) 있다. 독립은 되었다고 하나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마음 둘 곳 가지지 못하기는 매 한가지이기에 “미국식 조선판”(149), “소련식 조선판”(149)에 대한 비판은 제국의 질서가 해체되고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전환의 국면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구조적 동일성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소년은 자란다』는 흥미롭게도 그러한 구조적 동일성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가장 취약한 이들의 ‘도덕적 감수성’으로부터 발견한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린 남매를 주인공으로 삼으면서도 다부지지 못했던 아버지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서사구조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갈망⁶³⁾을 효과

61) 이경재는 선행 연구에서, 『소년의 자란다』가 민족주의적 열기에서 벗어나 단독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귀환서사라고 분석한 바 있다(이경재, 2015, 『만주국 붕괴 이후 귀환서사 연구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9, 31쪽).

62) 오태영, 2007,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536쪽.

63) 류보선은 선행연구에서 “『소년은 자란다』는 해방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절합해 내고 동시에 그 안에서 ‘위기의 시대’에만 자란다고 하는 ‘희망의 징

적으로 드러낸다.

기차 안에서 전재민 남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이 저마다 10원짜리, 5원짜리를 꺼내서 어린 영자의 주머니에 쥐어주는 장면은 이 소설이 가난하고 하잘 것 없는 사람들의 연민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영호를 뜻하지 않은 감격스러움으로 이끌어 간 “차간의 동정심”(180)은 흰칠하고 홀륭하여 보였으나 자신들을 “그저 분승만승”(135) 했던 삼청동 “거리의 동정심”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영호가 “부자나 홀륭한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가난하고 하잘것없는 사람들이면서, 마음은 그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다”(181)는 사실에 가슴 저리는 장면은 소년이 윤리적 분별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소설은 영호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려 공동체적 삶을 누리라는 윤리적 요구⁶⁴⁾에 민감할 것임을 낙관한다. 연민을 가진 개인은, 순종적 개인과는 달리,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 수 있으며,⁶⁵⁾ 그렇기 때문에 연민은 공적 도덕성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놓여있다.

소년 영호의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신을 보호해 줄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동생 영자를 배고프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이 더 긴급하고 절실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영호는 더 긴급한 일이 동생 영자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여관의 끝이꾼으로 들어간다. 여관에서 일을 하는 동안 영호는 해방 시기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겉으로는 홀륭하게 보이나 실상은 하나도 홀륭하지 않은 사람들, 즉 “물고기를 만질 때처럼 확실히 차가운 것이 있는 사람들”(220)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홀륭함에 대한 분별이란 “누더기를 걸쳐 지저

후'를 발견해낸다"고 분석하며 이 작품을 “해방직후 문학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류보선, 2012,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180쪽). 이 글은 『소년은 자란다』가 위기 속에서 자라는 희망의 징후를 발견한 작품이라는 데 동의하되, 소년 영호가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주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64) 인디고 연구소, 2014, 『지그문트 바우만 인터뷰: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궁리, 95쪽.

65) 마사 누수바움, 조형준 역, 2015, 『감정의 격동2: 연민』, 새물결, 730-731쪽.

분하고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는 앓을망정, 정거장 앞에서 대떡을 파는 할머니며, 여러 음식 장수들과 지게별이꾼”(240-241)이 지녔던 마음,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영호가 배운 것이다. 그 마음이 유독 가난하고 하잘 것 없는 사람들로부터 연원하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나도 고통당하는 이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과 취약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러한 인간 존재의 본원적인 취약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협력할⁶⁶⁾ 수 있다. 영호는 “어떤 것이 정말로 훌륭한 것인가”(241)에 대해서 아직 모르지만, 훌륭하지 못한 것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방법”(245)을 찾아, 넉넉한 벌이를 보장해주는 여관집을 떠난다. 돈을 탐내지 않고 오직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만”(241)을 바라는 영호의 모습을 통해, 긴 서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주체와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위로부터의 조망을 통한 진보의 기획’에 놓여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IV. 나가며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로 영화·방송·문학·강연 등의 술한 프로파간다들과 함께 ‘열광’의 정서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배포되었다.⁶⁷⁾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 불었던 ‘만주 열광’은 만주 표상이 프로파간다 매커니즘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당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만주 열광’은 “현재와는 다른 삶을 열망하는 욕망이 만주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기호화된 것”⁶⁸⁾이다. 만주는 다른 삶에 대한 욕망과 사유를 실천하도록 ‘할퀴고 들볶는’ 이질적인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66) 리처드 세넷, 김병화 옮김, 2013, 『투게더』, 현암사, 123쪽.

67) 하신애, 2011,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 표상 연구 - 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341쪽.

68) 곽은희, 2104, 『감성으로 기억하는 만주』, 『만주연구』 18, 138쪽.

(heterotopia)⁶⁹)이다. 프로파간다는 의도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그러한 사실들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지만, 거짓과 허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프로파간다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사람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강화할 때⁷⁰)이다. 그런 연유로, 다른 삶을 욕망하는 대중에게도,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바깥으로 분출할 다른 공간을 욕망하는 제국에게도, 만주의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은 프로파간다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화(motivation) 요인이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은, 관객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의 근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후방투사 환등기 판타즈머고리어(phantasmagoria)⁷¹)와도 같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과 틈새를 들여다보는 일은 후방투사 기계 판타즈머고리어가 특정 공간에 관한 경관(landscape)⁷²)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원리를 해부하는 작업과도 같다. 어떠한 공간을 이데올로기의 특정한 형태인 경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중심핵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심핵은 이데올로기와 교섭하는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내며 그 공간을 동질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재를 분석하는 작업은 공간 표상의 중심핵, 즉 표상의 특권화된 중심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서사가 지닌 명료함과 거리를 두고, 애초에 그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애매성과 모호함에 민감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69)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1~26쪽.
 70) 데이비드 웰치, 이종현 역, 2015, 『프로파간다 파워: 인간과 세상을 조종하는 선전의 힘』, 공존, 12-41쪽.
 71) 데릭 그레고리, 최병두 역, 2013,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적 지리』,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텔프리트 편, 앞의 책, 541-542쪽.
 72) 경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중히 세계를 선택하고 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의 특정한 형태이며 의미 체계인 동시에 사회적 재생산의 체계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에 경관의 재현은 노동계급을 회생시키고 지주의 권한을 합법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돈 미첼, 류제현 외 3인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238-280쪽).

제국/식민지 시스템에서 제국으로부터 발원하는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은 만주 개척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했다. 그래서 만주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만주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관하여 접근하는 데는 만주 개척 서사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는 만주국 붕괴 이후 만주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만 조선인의 만주국 인식과 조선인들의 만주국 인식 간의 격차, 만주 귀환자들의 불안과 고난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한다. 따라서 만주 개척 서사를 만주 귀환 서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국가주도의 사회공학 적 기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 개척 서사에 내재된 욕망과 디아스포라적 현실과의 간극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만주 이주 지지자들은 일본의 잉여 농업 노동력을 만주국으로 내보냄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⁷³⁾ 만주사변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정책이민 역시 만주 지역에 조선인 이민을 송출하여 이들을 소농으로 창출함으로써 소작쟁의로 인한 치안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고 만주에 산재하고 있던 거주(既住) 농민들을 관리하고자⁷⁴⁾ 한 것이다. 귀환 서사 속에 담겨 있는 만주의 기억은 내부에서 생산된 사회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국외 송출하는 대량 이주 시대로서의 근대⁷⁵⁾에 관한 것이다. 귀환 이후 전재민들이 겪는 고난은 잉여 인구의 축적에 대한 두려움이 비단 식민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지의 아들』이 거대한 사회공학을 통한 진보를 내세우는 데 반해 『소년은 자란다』는 연민으로부터 발원하는 상호부조를 서사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소년은 자란다』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년이 곤경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적 분별력을 갖추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프루동이 ‘아나키즘’이라는 용어

73) Louise Young, 1998, *ibid.*, p. 420.

74)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민」, 『사회와 역사』 103, 203-205쪽.

75)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75-77쪽.

를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상호성 혹은 위계와 국가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의 협동을 염두에 두었다⁷⁶⁾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년은 자란다』는 자주성과 자유,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무정부의적 감성에 가깝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년은 자란다』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무정부주의적 상태 자체라기보다는 서로의 고난에 관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자주적인 움직임과 동시대적 고난을 함께 겪고 있기에 타자를 향해 열리는 연민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타자를 양산하고 추방하는 대량 이주시대로서의 근대를 성찰하도록 만들며, 소년 영호가 관찰했던 ‘이상한 민주주의’와는 달리, 낮은 자를 환영하는 의지로서의 민주주의⁷⁷⁾를 태동하게 한다. 『대지의 아들』과 변별되는 지점은 그 마음이 소년 영호와 같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로부터 연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지의 아들』에서 낙관하고 있는 것이 국가주의적 유토피아 담론이라면 『소년은 자란다』에서 낙관하고 있는 것은 부서져 열리는 마음, 부서지면서도 미래를 꿈꾸는⁷⁸⁾ 마음이다. 또한 『대지의 아들』이 진보를 향한 근대적 기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소년은 자란다』는 앞으로 나아가되 파국을 맞은 근대적 기획의 과거를 돌아보며 파국의 내부를 표면으로 드러낸다. 만주리는 공간을 표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근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탈)근대를 맞이하는 역사관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제 말기와 해방기의 만주 디아스포라를 통해 살펴본 하나의 사례이지만,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제 사이의 간극과 틈새는 현재에도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76) 제임스 C. 스콧, 김훈 역, 2014,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 여름언덕, 11쪽.

77) 파커 J. 파머, 김찬호 역, 2018,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글항아리, 9쪽.

78) 파커 J. 파머, 김찬호 역, 2018, 위의 책, 10~21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권성우 편, 2015, 『허준 중단편선 찬등』, 문학과지성사
김만선, 1948, 『김만선 창작집 압록강』, 동지사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이기영, 1939. 1., 『국경의 도문-‘만주소감』, 『문장』
이기영, 1939. 9. 26.~10. 3., 『만주 견문-‘대지의 아들’을 찾아』, 『조선일보』
이기영, 1939. 11.,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이기영, 1939.10.12.~1940. 6. 1.,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 이상경 편, 2016, 『대지의 아들』, 역락
채만식, 박상률 편, 2005, 『채만식 소설 소년은 자란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 논문 및 단행본

- 곽은희, 2013,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곽은희, 2014, 『감성으로 기억하는 만주』, 『만주연구』 18
곽은희, 201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김윤미, 2009,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17
데릭 그레고리, 최병두 역, 2013,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적 지리』,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데이비드 웰치, 이종현 역, 2015, 『프로파간다 파워: 인간과 세상을 조종하는 선전의 힘』, 공존
돈 미첼, 류제헌 외 3인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루이 알튀세, 김진엽 역, 1991, 『자본론을 읽는다』, 두레
류보선, 2012,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리처드 세넷, 김병화 역, 2013, 『투게더』, 현암사
마사 누수바움, 조형준 역, 2015, 『감정의 격동2: 연민』, 새물결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 2015,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회단』, 현실문화
박이진, 2018, 『문화대전과 귀환자: 『귀환자필휴』 속 포섭의 논리와 착종된 표상』, 『해방 후 남북한의 국가건설과 전후처리』, 경인문화사

- 발터 벤야민, 김영옥·윤미애·최성만 역, 2007,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 아사노 도요미, 이길진 역, 2005, 『살아서 돌아오다: 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솔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2014,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오테영, 2007,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한국문학연구』 32
- 와타나베 나오키, 2009,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국대학교출판부
- 윤희탁, 2001, 『만주국 농촌의 사회상-‘복합민족구성체’의 견지에서 본 식민지 농촌의 단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 윤희탁, 2012, 『‘복합민족국가’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滿洲國人’의 충돌·수난』, 『중국사연구』 78
- 이경재, 2015, 『만주국 붕괴 이후 귀환서사 연구-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9
- 이상경, 2016, 『‘기획소설’과 생산소설 그리고 검열-이기영 장편소설 《대지(大地)의 아들》론』, 『현대소설연구』 62
- 인디고 연구소, 2014, 『지그문트 바우만 인터뷰: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궁리
- 임유경, 2015, 『‘不穩’과 통치성-식민지 시기 ‘불온’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90
- 전우형, 2018, 『접경(Contact Zones)의 연쇄로서 해방 공간과 허위와 무위의 영화적 공간』, 『동악어문학』 75
- 정근식·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 제임스 C. 스콧, 김춘동 역, 2004,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 제임스 C. 스콧, 김훈 역, 2014,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 여름언덕
- 제임스 C. 스콧, 이상국 역, 2015,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삼천리
-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김정아 역, 2012, 『역사: 끝에서 두 번째 세계』, 문학동네
- 채호석, 2010, 『검열과 문학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국대학교 출판부

- 크리스 필로, 최병두 역, 2013, 『푸코의 지리학』, 마이크 크랭 · 나이절 스리프트 편, 『공간적 사유』, 에코 리브르
- 클리퍼드 기어츠, 김용진 역, 2017, 『극장국가 느가라』, 도서출판 놀민
- 파커 J.파머, 김찬호 역, 2018,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글항아리
- 패리 앤더슨, 김현일 역, 2014,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현실문화
- 하신애, 2011,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 표상 연구-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 James C. Scott,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 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and Cambridge: Polity Press
- Michel Foucault, 1967, "Different Spaces", edited by James D. Faubion, translated by Robert Hurley and others, 2006, *Aesthetics, Method and Epistemology*, New York Press

투고일 : 2018년 10월 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29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y and Realities of the Propaganda of Colonialism

— Focused on the Changes in Manchuria Representation —

Kwak, Eun-Hee (Donga University)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gaps between strategic and actual mechanisms of colonial propaganda with a focus on changes in Manchuria representation. I analyzed the Manchurian pioneer narrativ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narrative of repatriation to Manchuria in the liberation period to trace variations between ‘power driving propaganda aimed at structural oppressive’ and ‘power driving substantive reality’. In the Son of Earth, a Manchurian pioneer narrative, an agricultural progressive narrative creates a new society through massive social engineering, a project combined with national government. In the text, modifications of nature and human beings are more distinguishable and highly manipulatable, with the focus moving increasing on productivity. Taken outright, according to the nationalist utopia discourse of the Son of Earth, the benefits of progress were all the results of social engineering, which excludes the Boy Grows Up, the Manchurian return narrative, from such official discourse. Boy Grows Up describes the live of a fragile boy who grows up in a way that provides him with the means to live on his own and with faculties of ethical discernment. In this way, the mutual assistance of ordinary people emerging as the core of the narrative allows us to identify desires for new subjectivities and communities discernable from ‘top-down progressive planning dynamics’. Thus, the Manchurian return narrative reveals gaps between the social engineering project and colonial realities, as well as gaps between the aims of pioneering narratives and diasporic reality by allowing for a postmodern colonial memories to

40 만주연구 제 26 집(2018.10)

probe inside colonial propaganda.

Key word: colonialism, propaganda, interstice, gap, Manchurian pioneer narrative, Manchurian return narrative.

www.kci.go.kr